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0. 2.(수) 11:00 < 10.2.(수) 석간 > 배포 2024. 10. 1.(화)

2024년 3분기 외국인투자 251.8억 달러, 3분기 누적 역대 최대 금액 달성

- 전 세계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위축에도 글로벌 기업 대한(對韓) 투자 견조한 증가
-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소부장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 36.4% 증가

2024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251.8억 달러(+5.2%)를 기록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집계가 시작된 1962년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을 달성하였다.

【업종별】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36.4% 대폭 증가한 123.1억 달러를 기록, 작년 3분기에 이어 다시 한번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전기·전자(45.1억 달러, +35.9%), 기계장비·의료정밀(16.6억 달러, +128.5%), 의약(6.9억 달러, +136.4%) 등 업종에서 투자금액이 대폭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투자는 작년 대형 투자(A社 M&A 10.5억 달러)에 따른 기저효과로 다소 감소한 119.5억 달러(△13.3%)를 기록하였다.

* 3분기 누적 제조업 투자 실적 : 1위 ('24년) 123.1억 달러, 2위 ('23년) 90.2억 달러, 3위 ('18년) 83.8억 달러

【국가별】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46.9억 달러(+412.7%)로 역대 1위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중국은 45.7억 달러(+316.3%)를 기록하였다. 미국과 EU로부터의 투자 유입은 각각 31.2억 달러(△39.9%), 39.5억 달러(△1.4%)를 기록하였다.

【유형별】 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대비 12.9% 증가한 189.3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M&A 투자는 62.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2.7% 감소하였다.

【지역별】 비수도권 투자비중은 26.4%로 전년 대비 2.7%p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 비중(%) : '19.3분기 15.1 → '20.3분기 15.2 → '21.3분기 13.8 → '22.3분기 33.6 → '23.3분기 23.7 → '24.3분기 26.4

【평가】 중동 정세 악화 및 미중 갈등 지속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FDI가 2년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24년 3분기 251.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제조업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전체 투자 증가를 견인하였고, 특히 반도체(+52.8%)·바이오(+264.2%) 등 첨단산업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소부장 투자도 역대 최대인 93.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향후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강화에 글로벌 기업들의 對韓 투자확대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	책임자	과 장	엄재영 (044-203-4080)
		담당자	사무관	김민수 (044-203-408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2024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상세 동향**

Ⅰ. 총괄

□ **(실적) '24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 251.8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5.2%)로 **역대 최대 금액 달성, 도착금액은 104.9억 달러 기록**(△27.2%)

< 신고금액 >



< 도착금액 >



□ **(평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3분기 누적 기준 251.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제조업 투자** 및 **소부장 분야 투자** 역대 1위 실적 달성

○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글로벌 FDI 감소세**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분기 역대 최대 실적**(251.8억 달러) **달성**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들의 신뢰 확인**

* 글로벌 FDI 추이: ('21) 1.62조 달러 → ('22) 1.36조 달러 → ('23) 1.33조 달러 (UNCTAD, '24.6월)

○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소부장**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가 증가하며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기여 효과** 기대

* 전기·전자(45.1억 달러, +35.9%), 기계장비·의료정밀(16.6억 달러, +128.5%), 의약(6.9억 달러, +136.4%)
** 소부장 투자는 93.8억 달러(+59.2%)로 역대 최대 실적 경신

○ **그린필드 투자**도 역대 최대인 189.3억 달러(+12.9%)를 기록, **M&A 투자**는 6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감소(△12.7%)

○ **非수도권 투자비중은 26.4%로 전년 동기 대비 2.7%p 증가하였으며,** 2022년 예외적인 비수도권 대형 M&A 투자(27.5억 달러)를 제외하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

* 비수도권 투자비중(%) : '19.3분기 15.1 → '20.3분기 15.2 → '21.3분기 13.8 → '22.3분기 33.6 → '23.3분기 23.7 → '24.3분기 26.4

1. 업종별(신고기준)

□ **(금액) 제조업**(123.1억달러, +36.4%, 비중 48.9%) **큰 폭으로 증가, 서비스업**(119.5억달러, △13.3%, 비중 47.4%)**·기타업종**(9.3억달러, △18.2%, 비중 3.7%) **다소 감소**

* 기타업종 : 1차산업(농·축·수산·광업),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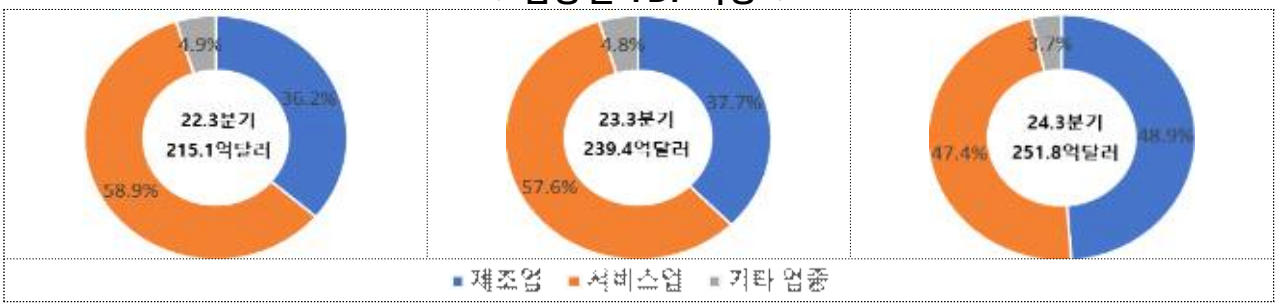
< 업종별 신고금액(단위 : 억달러) **>**



< 업종별 신고건수(단위 : 건) **>**



< 업종별 FDI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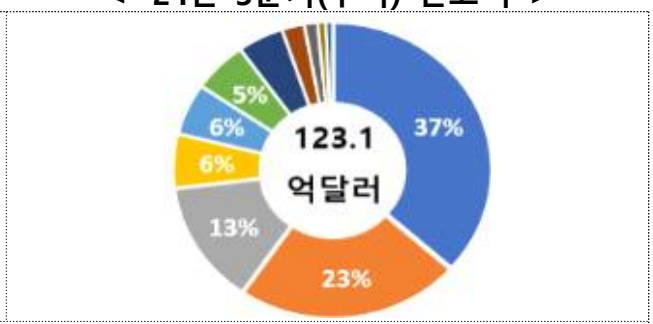


○ **(제조업) 123.1억 달러**(+36.4%, 비중 48.9%)

< '23년 3분기(누적) 신고액 >



< '24년 3분기(누적) 신고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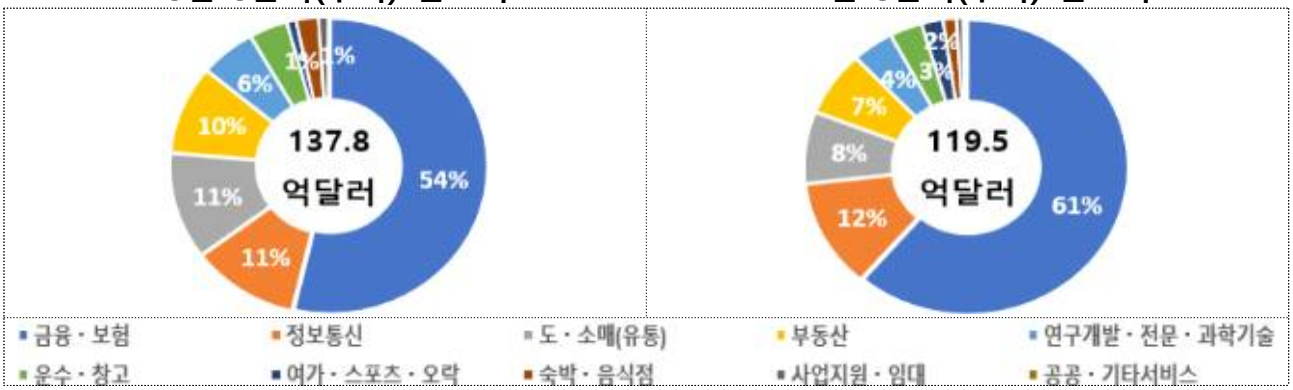


– **(증가업종) 전기·전자**(45.1억달러, +35.9%), **기계장비·의료정밀**(16.6억달러, +128.5%), **금속·금속가공**(7.3억달러, +30.1%), **운송용기계**(6.9억달러, +14.6%) 등

– **(감소업종) 화공**(25.0억달러, △16.8%), **식품**(1.7억달러, △49.1%) 등

○ **(서비스업) 119.5억 달러**(△13.3%, 비중 47.4%)

< '23년 3분기(누적) 신고액 > **< '24년 3분기(누적) 신고액 >**



– **(증가업종) 여가·스포츠·오락**(2.5억달러, +95.8%), **공공·기타서비스**(0.3억달러, +1,145.3%) 등

– **(감소업종) 금융·보험**(73.2억달러, △1.1%), **정보통신**(14.2억달러, △6.8%), **도·소매(유통)**(9.4억달러, △41.6%), **부동산**(8.5억달러, △36.5%)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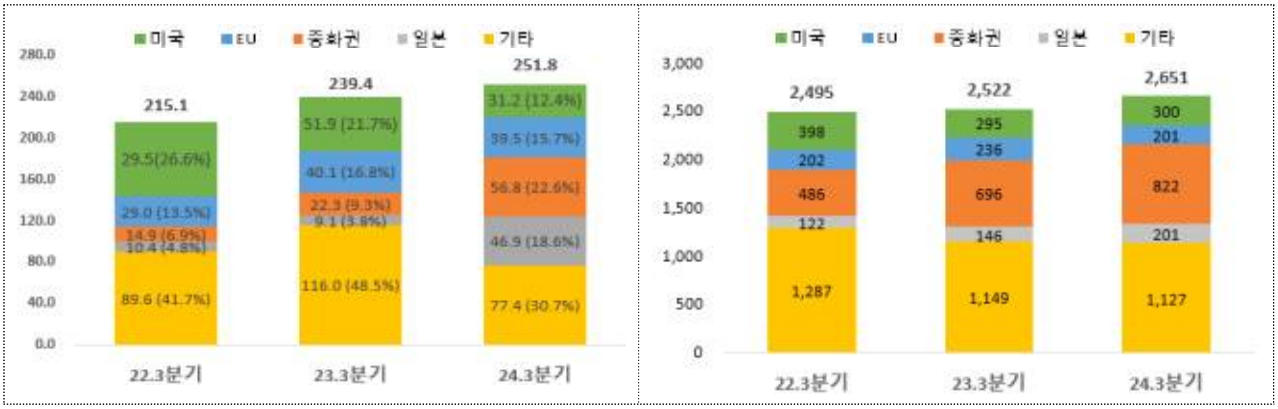
□ **(건수) 제조업**(419건, +33.9%)·**서비스업**(2,153건, +2.9%) **증가, 기타업종**(79건, △31.9%) **감소**

2. 국가별(신고기준)

(* EU : 영국 제외 27개국, 중화권: 중국, 홍콩, 대만)

□ **(금액) 미국**(31.2억달러, △39.9%, 비중 12.4%), **EU**(39.5억달러, △1.4%, 비중 15.7%), **기타국가**(77.4억달러, △33.3%, 비중 30.7%) **감소, 중화권**(56.8억달러, +155.1%, 비중 22.6%), **및 일본**(46.9억달러, +412.7%, 비중 18.6%) **증가**

< 국가별 신고금액(단위 : 억달러) **>** **< 국가별 신고건수**(단위 : 건) **>**



○ **(미국) 31.2억 달러**(△39.9%, 비중 12.4%)

– **(업종별) 제조업**(12.6억달러, △57.1%), **서비스업**(14.8억달러, △34.3%) 모두 **감소**

– **(유형별) 그린필드**(28.2억달러, △44.1%) **감소**, **M&A**(2.9억달러, +114.5%) **증가**

○ **(EU) 39.5억 달러**(△1.4%, 비중 15.7%)

– **(업종별) 제조업**(19.1억달러, +61.8%) **증가, 서비스업**(19.4억달러, △19.0%) **감소**

– **(유형별) 그린필드**(26.0억달러, +21.5%) **증가**, **M&A**(13.5억달러, △27.7%) **감소**

○ **(중화권) 56.8억 달러**(+155.1%, 비중 22.6%)

– **(업종별) 제조업**(45.0억달러, +336.1%) **증가**, **서비스업**(11.2억달러, △6.1%) **감소**

– **(유형별) 그린필드**(50.3억달러, +149.7%), **M&A**(6.6억달러, +206.1%) 모두 **증가**

○ **(중국) 45.7억 달러**(+316.3%, 비중 18.2%)

– **(업종별) 제조업**(37.0억달러, +303.3%), **서비스업**(8.2억달러, +356.4%) 모두 **증가**

– **(유형별) 그린필드**(45.2억달러, +336.6%) **증가**, **M&A**(0.5억달러, △13.8%) **감소**

○ **(일본) 46.9억 달러**(+412.7%, 비중 18.6%)

– **(업종별) 제조업**(42.6억달러, +813.6%) **증가**, **서비스업**(4.3억달러, △3.1%) **감소**

– **(유형별) 그린필드**(41.4억달러, +407.0%), **M&A**(5.5억달러, +460.5%) 모두 **증가**

○ **(기타국가) 77.4억 달러**(△33.3%, 비중 30.7%)

– **(업종별) 제조업**(3.8억달러, △88.9%), **서비스업**(69.8억달러, △7.0%) 모두 **감소**

– **(유형별) 그린필드**(43.3억달러, △35.8%), **M&A**(34.1억달러, △29.8%) 모두 **감소**

□ **(건수) 미국**(300건, +1.7%)**, 중화권**(822건, +18.1%)**, 일본**(201건, +37.7%) **증가, EU**(201건, △14.8%), **기타 국가**(1,127건, △1.9%) **감소**

3. 유형별(신고기준)

□ (금액) 그린필드형(189.3억 달러, +12.8%, 비중 75.2%) 증가, M&A형(62.6억 달러, △12.7%, 비중 24.8%) 감소

< 유형별 신고금액(단위 : 억달러) >



< 유형별 신고건수(단위 : 건) >



○ (그린필드) 189.3억 달러(+12.8%)

– 제조업(110.4억 달러, +44.7%) 증가, 서비스업(70.1억 달러, △14.2%) 감소

○ (M&A) 62.6억 달러(△12.7%)

– 제조업(12.6억 달러, △9.1%), 서비스업(49.4억 달러, △12.1%) 모두 감소

□ (건수) 그린필드(2,443건, +5.9%) 증가, M&A(208건, △3.7%) 감소

4. 자금별(신고기준)

□ (금액) 신규투자(127.2억달러, +8.1%, 비중 50.5%)·장기차관(15.2억달러, +61.2%, 비중 6.0%) 크게 증가, 증액투자(109.5억달러, △2.5%, 비중 43.5%) 소폭 감소

* 신규투자 :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
증액투자 :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
장기차관 : 외국투자가 또는 모기업 등이 기업에게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 자금별 신고금액(단위 : 억달러) >



< 자금별 신고건수(단위 : 건) >



○ **(신규투자) 127.2억 달러**(+8.1%)

– **제조업**(74.2억달러, +76.1%) 크게 **증가**, **서비스업**(50.9억달러, △26.7%) **감소**

○ **(증액투자) 109.5억불**(△2.5%)

– **제조업**(39.6억불, △5.4%), **서비스업**(62.7억불, △3.7%) **모두 소폭 감소**

□ **(건수) 신규투자**(1,682건, +4.5%), **증액투자**(893건, +6.6%) **모두 증가**

5. 지역별(신고기준)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비수도권 : 이외 14개 시·도
미정 : 투자지역을 정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 **(금액) 수도권**(126.9억 달러, △19.1%), **비수도권**(45.6억 달러, △6.4%) **모두 감소, 투자지역 미정**(79.3억 달러, +134%) **증가**

< 지역별 신고금액(단위 : 억 달러) **>**



< 지역별 신고건수(단위 : 건) **>**



○ **(수도권) 126.8억 달러**(△19.1%)

– **제조업**(30.4억 달러, △18.7%), **서비스업**(94.9억 달러, △18.2%) 모두 **감소**

* 서울(100.7억 달러, △16.1%), 인천(1.5억 달러 △61.5%), 경기(24.6억 달러, △24.9%)

○ **(非수도권) 45.6억 달러**(△6.4%)

– **제조업**(30.8억 달러, △18.7%) **감소, 서비스업**(8.3억 달러, +0.02%) **증가**

* 증가 시·도 : 충남(7.82억 달러, +257.1%), 충북(5.77억 달러, +255.3%), 대전(5.33억 달러, +73.4%), 전남(5.27억 달러, +102.9%), 제주(2.53억 달러, +458.1%), 부산(2.19억 달러, +28.1%), 강원(1.82억 달러, +537.0%), 대구(0.74억 달러, +181.5%),

* 감소 시·도 : 전북(7.65억 달러, △11.1%), 경북(3.68억 달러, △70.8%), 경남(1.62억 달러, △65.5%), 울산(1.13억 달러, △79.4%), 광주(0.06억 달러, △98.3%), 세종(0.00억 달러, △99.7%)

□ **(건수) 수도권**(1,828건, +1.8%) **증가, 비수도권**(438건, △15.8%) **감소**